

머리카락의 일령에 따른 변화와 물리화학적 영향에 의한 변화

최기주 · 엄창섭 · 문성진 · 박창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사람이 신체중 매우 관심을 갖는 머리카락의 미세구조와 여러요인에 의한 변화정도는 관심도에 비하여 알려진 바가 적다. 이에 저자들은 여러가지 머리카락을 모아서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일령에 따른 변화는 먼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태아의 머리는 비늘모양의 큐티클층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며, 굵기도 성인의 것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5배 ($113\mu\text{m}$ vs $22\mu\text{m}$) 가늘었다. 이후 큐티클층이 발달하여 3개월령이면 큐티클 간격이 성인과 유사해졌고, 굵기는 2년이되면 성인과 거의 같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 물리화학적 변화로는 헤어드라이의 가열에 의한 갈라지고 부러진 머리털, 염색과정중에 큐티클이 완전히 훼손된 머리털, 파마에 의한 손상등 몇가지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